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겹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개역, 마가복음 11:1-11]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틈틈이 자신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죽으셔야 할 시기인 유월절에 맞추어, 죽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을 돌아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느닷없이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 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수 많은 군중들이 들이닥치면 교통신호도, 경찰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무리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손쓸 틈도 없이 예루살렘을 발각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1.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라의 독립을 되찾으실 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지 500년이 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왕을 세운 적이 있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 이민족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권은 로마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위엄을 갖추려면 말을 타고 근엄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왜 나귀를 탔을까요? 그것도 새끼를 말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였으니 사람을 태울 줄이나 알았을까요? 휘청거리는 앉았을까요?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다 큰 어른이 아이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코미디에나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은 왕이로되 겸손한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셔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는 모습대로 믿고 행동합니다. 도무지 세상을 호령할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오셔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야 뭐라 하시던 자기 생각대로 처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세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피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분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귀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스가랴 9:9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하니

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도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받은 혹독한 고문과 수 많은 거짓 증언들과 멀리 가운데서도 원망 한마디 없으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마름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차라리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요한 복음 19:28절에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고 말씀하십시오. 곁에 섰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때에도 예수님은 시편 69:21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 오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더라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입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러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문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앞에 가는 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도 욕이 튀어나옵니까? 조금만 마음이 맞지 않아도 견딜 수 없는 갈등에 빠집니까? 분함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더러 있습니까?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귀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의 머리 속에는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수 9:9). 그 모습이 '영구'를 닮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구보다 더한 바보짓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환호하는 무리들은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행차치고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외칩니다. 나귀 새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짝짝 깔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으니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머리 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위대한 왕으로 보이겠지요. 나라를 빼앗긴 채 이민족의 통치를 받으며 서럽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이제야 좋은 세상이 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길에 걸옷과 나뭇가지를 까는 것은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들은 예수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태도가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던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왔음에도 엉뚱한 꿈에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하러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십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나오십니까? 그렇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십니까. 자식이 잘 되길 비는 것도 부모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됩니다. 차츰차츰 어른스러운 기도로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던 이들이 며칠 뒤에 겪게 되는 슬픔과 좌절은, 예수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탓입니다. 나 혼자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공로라곤 전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되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옛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종을 위하여 주인이 목숨을 버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종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죽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사는 것이 아

니라 죽은 주인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내 욕심만 잔뜩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우리들 아십니까? “아, 나도 한 때는 교회 다녀봤는데 별 것 없더라, 돈이나 내라 하고...”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전도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예수님은 외로이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스스로 왕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으니 스스로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도록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과 주인이 허락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산만큼 예지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신을 전혀 주(主)라고 하지 않던 분이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 ‘주’라고 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같은 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도 보여주시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호하는 이 무리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흥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 조용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가 다 하는 일이라든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살펴봅시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고독한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외로운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단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불의한 길이 아니라면 기꺼이 불신자들과도 교제를 나누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외롭더라도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